ПС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3 -MAY 2 6
Copy 1959

활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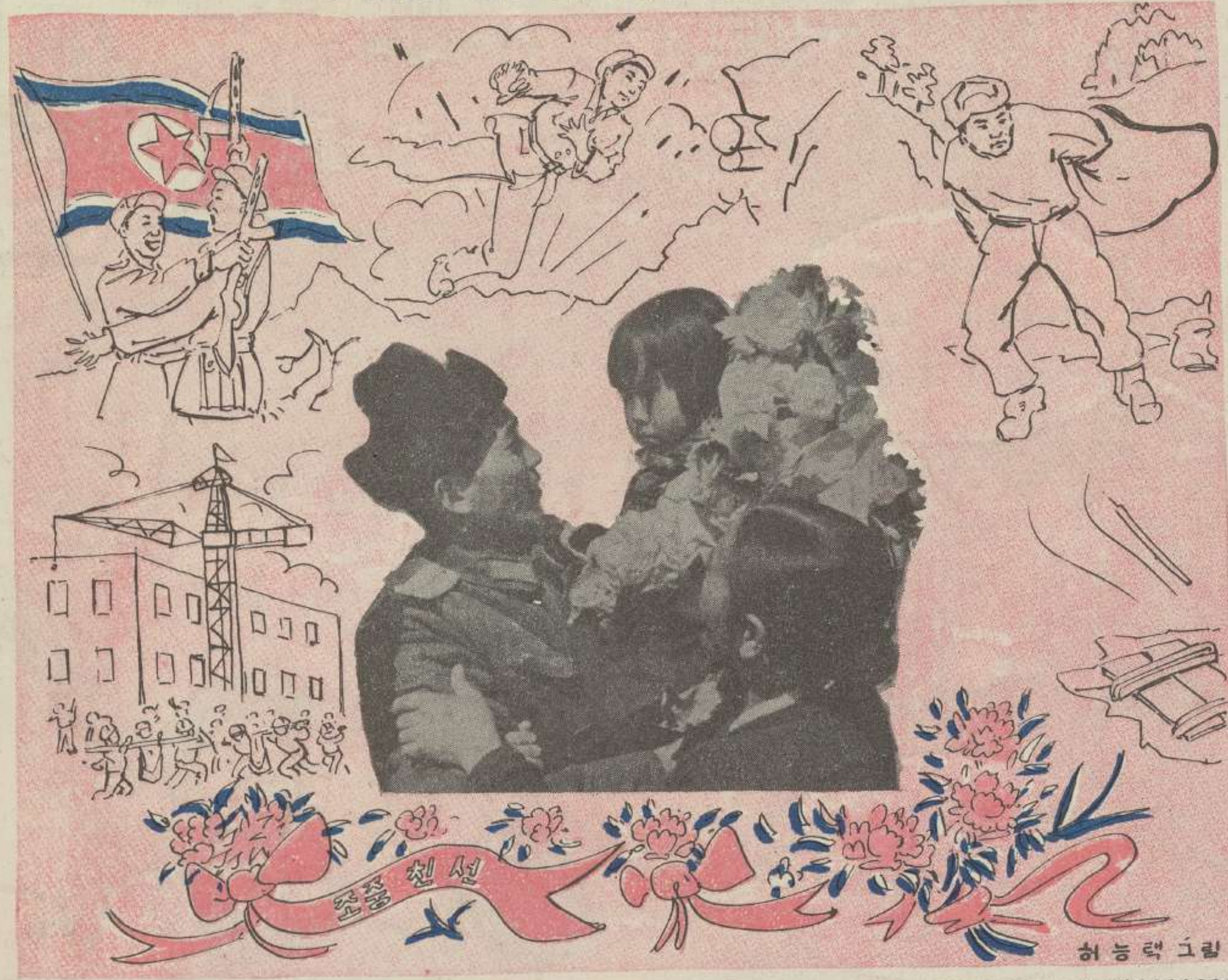
1958년 (97) 12월호

송룡남
백인균
홍종호 그림

벼 락!

최영근 그림

그 은공 영원히 잊지 않으리



허능렬 그림

오직 하나의 길

강창선

괴뢰 경찰은 요즘 한창 바쁘다. 년말 특별 초 비상경계중이다.

범죄가 많기로는 미국 다음으로 가는 《범죄의 소굴》이여서, 금년 9월까지의 9개월 간에 경찰 헌병을 비롯한 《국가 공무원》의 범죄중 립건된 것만도 1,960 건이고 그 중에는 77건의 강도 사건을 비롯해서 살인, 강간, 사기, 횡령, 협잡, 수회(뢰물 먹는 것), 협박, 공갈, 밀수, 방화 등 가지각색 사건들이 다 포함되여 있는 판이고, 무슨 짓을 하드래도 만무방인 《국가 공무원》으로써 어쩌다가 걸려들어 기소된 사건만도 이런 판이니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야 다시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번 년말 초 비상 경계에서 괴뢰 경찰들이 그처럼 분주한 것은 이런 범죄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실은 놈들이 비상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

거리로 두 청년이 이야기를 하며 걸고 있는데 등 뒤에서 사복 경찰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

〈임마, 방금 무슨 얘길 했어?〉

〈별말 한 건 없소.〉

〈내가 다 들었는데두 안 했어? 어디서 누가 갔다구 허잖었어?〉

〈중국 인민 지원군은 북조선으로부터 철거했다구 했소.〉

〈그것 봐, 그러구두 별말 안했다구?!〉

〈그거야 뭐 비밀인가요?〉

〈그래두 너희들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길 헌게 분명하단 말야. 미군은 왜 돌아 가지 않는가구 생각해서 허는 말루니까. 임마 가자.〉

〈어디루요?〉

〈어딘 어디야, 경찰서지.〉

중국 인민 지원군의 철거 완료와 함께 〈미국놈 나가라!〉는 전체 조선 인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기 따라 점점 더 궁지에 빠지고 있는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인민들의 입을 틀어 막아 보려고 발광해 날뛰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미군놈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비명에 죽는 사람들의 수효는 날을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대전시 교외에서는 학교로부터 돌아 오던 한 학생이 마침 짚차를 타고 그 옆을 달리던 미군놈이 심심풀이로 쏜 탄환에 맞아서 죽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그를 장례 지내고 돌아 오자, 집안이 텅 빈 것 같고, 당장에라도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돌아올 것만 같아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통한 마음을 누를 길 없어서 목을 놓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참 울다 보니 경관 한 명이 방문을 와락 열고서 구두'발 채로 들어섰다.

〈왜 동네가 소란스럽도록 울어?〉

〈알뜰한 아들이 죽었는데 우는 것이 뭐 잘 못인가요?〉

〈울면 죽은 애가 살아난대?〉

〈살아나든 못 살아나든 원통하니까 울지요.〉

〈원통하다! 무에 원통하단 말야? 미군이 없었더라면 이런 변은 없었으리라구 생각해서 온 동네가 소란스럽도록 울고 있는 게지?〉

〈알긴 잘 아는구만요.〉

〈그럼 실지루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가자 경찰서루…〉

×

이런 일 뿐만이 아니다. 어쨌든 중국 인민 지원군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미군놈들의 행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잡아 가두는 판이다.

그런가 하면, 레바논에서 미군이 끝내 쫓겨나게 된 것을 남조선 인민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제와 괴뢰 도당은 레바논이란 이름만 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아랍이란 말만 해도 당장에 미행이 붙는다.

하루는 중학생 두 명이 거리를 걸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복 경관이 미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학생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 서자 사복 경찰은 그들을 멈춰 세웠다.

〈임마,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했어?〉

〈아라비아 야화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아라비아 야화라니? 그게 뭐냐?〉

〈천일 야화라구두 하는데 방금 알리빠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요.〉

〈뭐? 그 알리빠빠란 자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랍 사람이지요.〉

〈아랍 사람? 옳지, 그러니까 그 알리빠빠란 자두 미국을 반대하구, 미군은 레바논에서 물러가라구 했겠구나?〉

〈알리빠빠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두 되기 전의 사람이요.〉

〈잔말 말어. 그래두 너희들이 왜 하필 아랍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냐 말야. 그건 레바논에서처럼 미군이 쫓겨 났으면 해서 하는 말이지? 경찰서로 가자.〉

이렇게 남조선 인민의 입을 막아 보려고 발광해 날뛰지만, 조국을 분렬시킨 원흉이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갖은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는 침략자를 어찌 저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군 나가라!〉는 웨침이 터져 나옴을 금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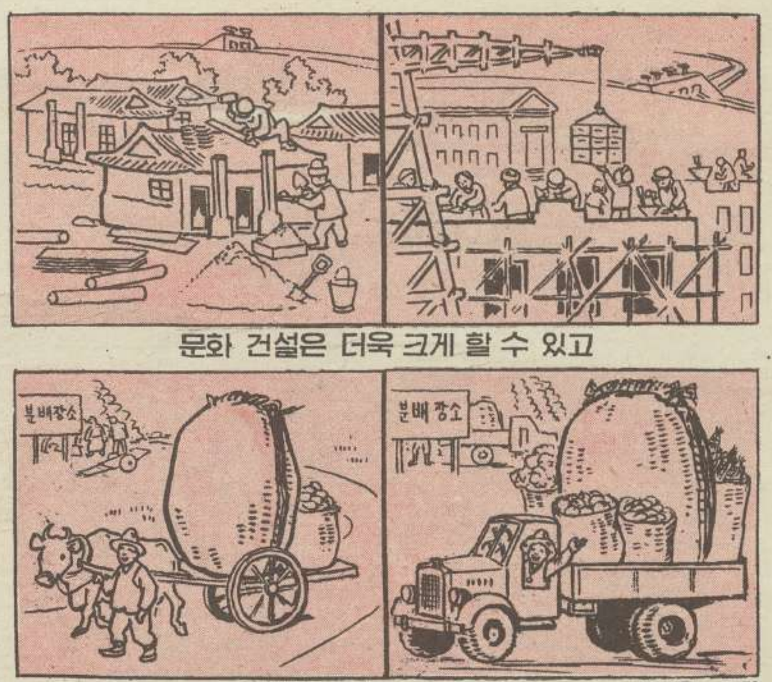
〈미군 나가라!〉는 웨침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의 길만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곧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는 것 뿐이다.

우리의 생활은 날로 향상 된다

조명식 그림

—일 할수록 로동은 흥겨워지는군
—임금 인상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많이 일합시다

통합 전　　통합 후



문화 건설은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분배는 더욱 많아 진다

리영춘 그림

글은 옳게 말은 바르게

신홍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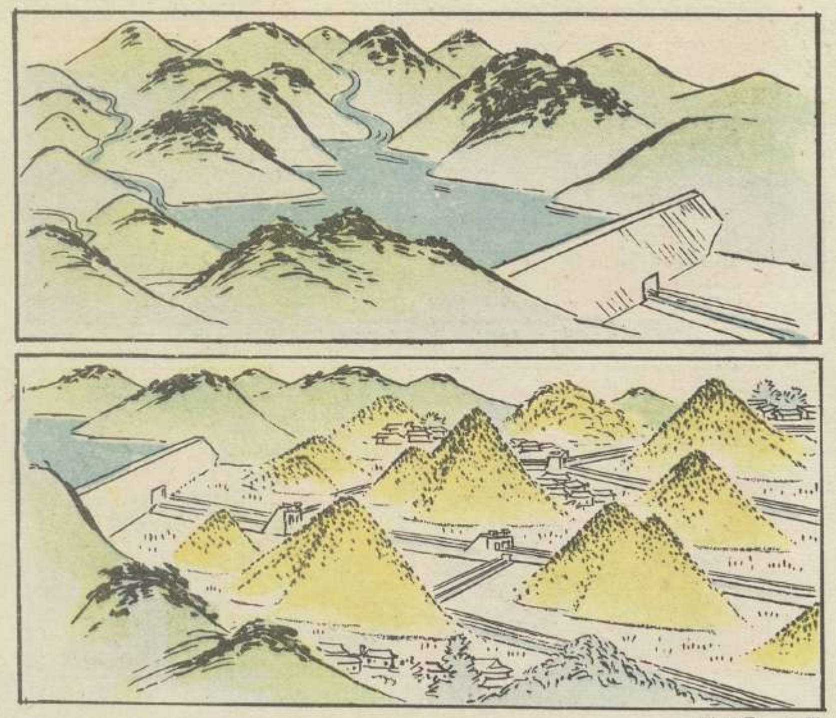
남 아이구 뭘 그렇게 많이 사 오십니까?
녀 네에 〈자무사와떡〉이라나요.
남 〈자무사와떡〉이요? 그건 어느 나라 떡입니까? 첨 듣는 이름인데?
녀 호… 조선 음식이지 어디 음식이겠어요
남 조선 음식이예요?
녀 나두 첨에 식당 앞에다`크게 〈자무사와떡 있습니다〉허구 써 놓았기에 어떤 건가 하구 물어 봤더니 이런게 아니겠어요 (종이에 싼 것을 보인다)
남 (드려다 보고) 아니 이거야 증편이 아닙니까?
녀 그렇이요. 증편에다 사과짬을 놓아 주고는 이름은 글쎄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써붙인 것만 보구는 뭔지 알아야 사 먹죠
남 원 저런!
녀 그리구 구호를 써 붙이는 데도 잘 못 써 붙이는게 있더군요
남 구호요? 혹시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죠
녀 어느 지방엘 가보니까 〈위생 개조〉라구 칠도 연변에다 크게 썼겠죠.
남 아니 위생 문화를 개조하자는 이때 〈위생 개조〉라구 쓴게 뭐가 틀려요?
녀 동무도 그렇게 리해허구 계시는군요? 위생을 개조하자니 그럼 비위생적으로 살잔 말인가요?
남 오 참 그렇게도 해석되는군요
녀 그러니까 우리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옳고 바르게 심중히 고려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남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데두 옳게 해야죠. 엊그제 어느 친구네 집엘 가서 찾으니까 그 동무가 나와서 허는 말이 〈출출헌데 한 잔 조직허지〉
녀 아니 조직이란 말이야 〈사회적 력량을 조직〉한다 〈사업을 조직〉한다 하는데 쓰이는 술어를 백죄〈술 조직〉이라구 함부로 써요?
남 그리구 혹시 어떤 친구는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네 요즘 뭘 허나?〉 물으면 〈나? 훈장질 해 먹네〉
녀 뭐 훈장질이요? 교원 노릇을 헌다 그 말이죠
남 그렇죠, 그게 자기딴엔 텁텁하게 논다는게죠
녀 나두 전번에 극장 앞에서 그와 류사한 얘길 들었어요. 남 동무 둘이 턱 만나더니 수인사를 허고 나서는 〈자네 요즘 뭘 허나?〉 허니까 〈난 비틀어 먹네〉하겠죠
남 아니 비틀어 먹다니요?
녀 나중에 알고 보니 운전사라는 말이예요
남 아하, 자동차 핸들을 비튼다구 해서… 허…그러니까 그것두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이 적은 표현이로군요
녀 그러니 이게 어디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어투입니까?
남 그러기에 우리 말을 옳게 쓰고 옳게 말해야 되지요
녀 물론이죠. 옳게 쓰고·아름답게 말해야지요

늘어가는 살림 길어지는 이랑

개인농 때　　협동화 된 후　　통합된 후

송용남 그림

산 우의 호수는 나락산을 낳았다



리영춘 그림

지방 자체의 힘으로도 다 할 수 있다

리영춘 그림

관개 공사는 농촌에 기술도 보급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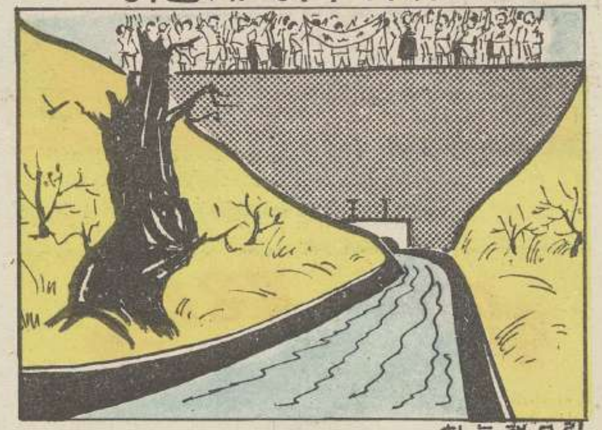
나갈 때 돌아올 때

백인균 그림

— 내가 있을 곳은 아무데도 없어 졌구나!

조상들의 념원은

이렇게 이루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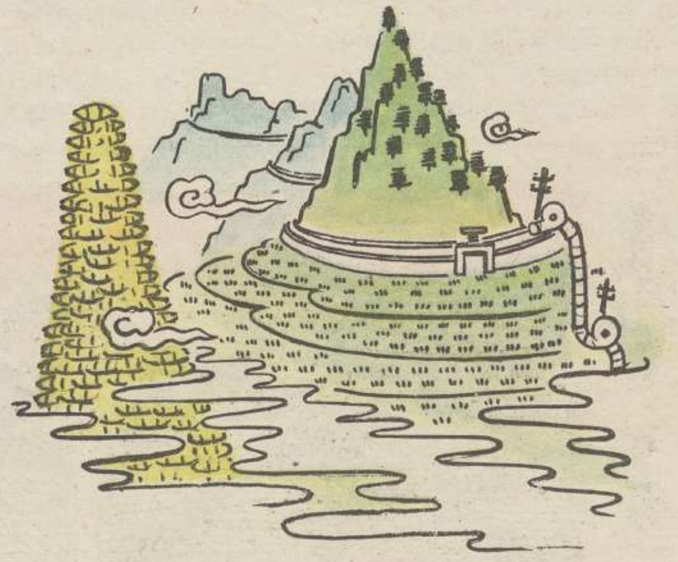


허능력 그림

로농동맹으로 대 자연도 개조한다

홍종호 그림

높은 수로, 높은 수확



최영근 그림

말로만 하지 말고

리동필

등장 인물

아버지 어머니 경수 (그의 아들)

막이 오르면—아버지 상수로 분주히 등장하여 하수를 향해서

아버지 여보! 여보! (대답이 없다. 신경질적으로) 여보!

어머니 (그제야) 네 (하며 나온다)

아버지 귀에다 말짱을 박았나? 왜 날래 대답을 못해

어머니 뭘 또 그러우

아버지 (상수를 가리키며) 저걸 좀 보우. 당신은 위생 사업이란 말로만 하는 경인줄 아오?

어머니 지금 막 치우려고 하던 참인데요.

아버지 말하면 말한다고 늘 잔소리라고 하지. 참! 딱한 노릇이군. 우선 당신 머리부터 청솔 해야겠소.

어머니 누가 들으면 무슨 큰 싸움이나 났다구 그러겠소. 어서 들어나 가슈, 내 쓸께.

아버지 근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뭘 해?엉?

어머니 했수다. 하루 종일 빨래 하구 저녁 짓누라고 미처 손이 못 가서 그랬수다. 경수가 지금 방을 쓸구 나와 쓸겠다구 그래서…

아버지 당신 바로 그런 태도가 위생 문화 사업에 위험하다구 내 항상 그러지 않소

어머니 앞으로 절대루 안 그럴터니 어서 들어가세요.

아버지 말이 났으니 한 마디 더 해야지. 근데 요새 왜 당신 그리 말이 많어?

어머니 말이라니요?

아버지 어제 인민반 회의 때 뭐랬어? 남편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부인들과 시비만 하지 말구 솔선 모범이 돼야 한다구…?

어머니 그래서 나쁜게 뭐 있나요?

아버지 나쁘단게 아니라 거 누구 보구 한 소린가 말이여?

어머니 그거야 남정들이 그럴 수 있는 현상들이기에 한 번 경고하느라구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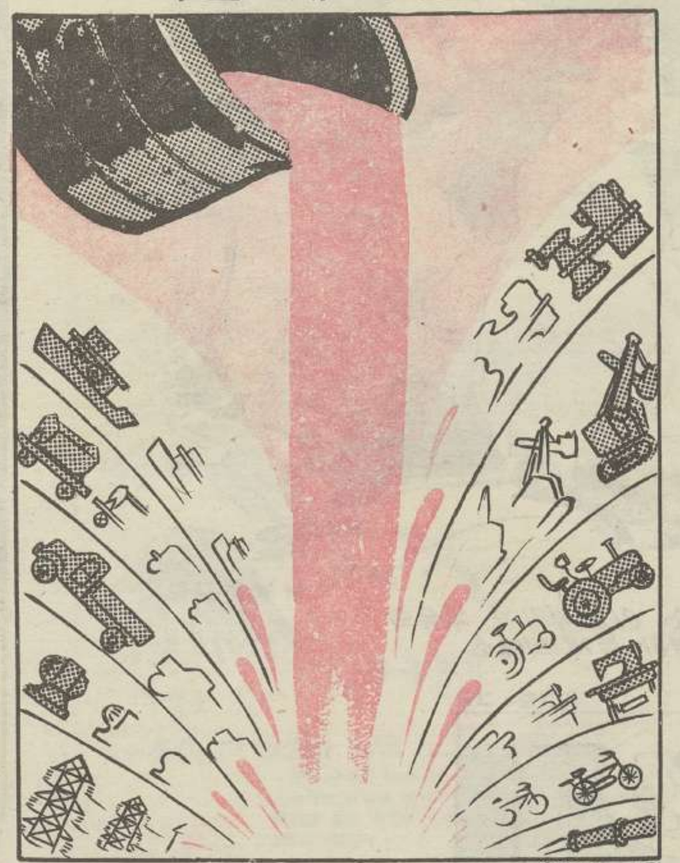
아버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제딴엔 뭘 잘한다구 그래! 이럴 때 누가 오면 내가 안 했다구 그러겠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게 하진 않구

어머니 ……

아버지 정말 남들 보기 창피해서.

△ 하수로 경수 재떨이에 광초와 휴지를 가득히 담아 가지고 등장.

쏟아지는 쇠'물은 수만가지 기계로



송룡남 그림

합쳐서 큰 강을 이룬다

조명식그림

경 수 아버지 이제 오세요?

아버지 엉! 거 어데 그런게 상기 있던?

경 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아버지 그래?! 여보 저걸 똑똑히 보우? 5월 4일 결정이 어제나 그제 나왔소? 당신은 거저 항상 말로만 하지. 왜 따 눈에 띄우는 데만 하우?

어머니 말끔이 치웠는데…

아버지 뭘 또 변명하려 하우?

경 수 아버지 양복 헙낭 청솔 하니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버지 뭘? 내 양복에서? 어데 가 보자 (퇴장)

경 수 (어머니에게) 아래 우 헙낭 속을 다 꺼냈더니 이렇게 많아요! 먹을 것두 수태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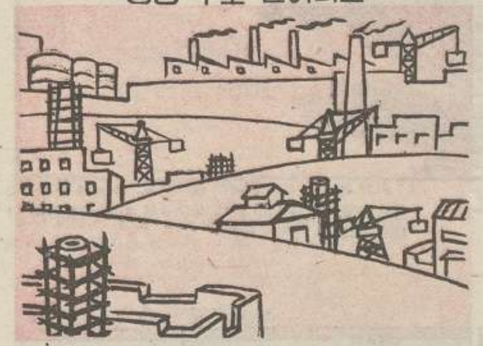
어머니 먹을거라니?

경 수 파리 먹을거 말이야 (휴지 하나를 들면서) 이거 봐!

어머니 에이 더러워 빨리 내다 버리구 마당이나 쓸어라, 난 밥을 지울테니, 아이구 밥 타는 내야. (퇴장)

경 수 네! (관객을 향하여) 여러분! 여러분네 집에나 직장에 우리 아버지와 같이 말로만 위생 문화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만일 계시다면 촌극을 본 말씀을 하여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장 수도 늘어나고



한집 식구의 옷을 짓던 손으로

로력 녀성의 수도 늘어간다

수천 사람의 옷을 만든다

송룡남 그림

출근 시간

어제와

오늘

홍종호 그림

젖소의 대렬이 늘어 간다

허 농택 그림

—어서 오십쇼 이제부터는 우유의 생산도 급격히 늘게 되였소

리영춘 그림

—이 조합에서는 외국에서 젖소까지 사왔구먼

— 아니 이게 조선소가 아니요??
— 예, 조선소도 젖소로 될 수 있지요

원광수 그림

암'돼지—우리 축산 반장 동무는 왜 내 심정을 이렇게도 몰라 주는가…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돼지는 방목을 좋아한다

송용남 그림

—얘야 너도 나오렴 울안보다 바깥이 훨씬 낫단다
—그래 같이 가자

국영 평강 농장과 평북도 의주군 8, 15 농업 협동조합 축산반들에서 돼지를 방목 함으로서 육류 생산에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술대학 송 시 엽그림

돼지—사료 대신에 계획서 뿐이구나!

한마리의 돼지

황해남도 룡연군 안동 농업 협동 조합은 가축 발전에 아주 유리한 지대이다. 바로 눈 앞에는 몽금포 바다가 있어 칼슘 성분이 많은 굴깝지, 조개껍질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고, 마을 뒤'산 덕치'골, 평풍골 등 가는 곳마다 칡넝쿨, 돼지풀등 신선하고 맛좋은 씰로쓰감들이 무진장하게 엉키고 덩키여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 조합에서는 1956년 조직 당시부터 오늘까지 조합에서 사육하는 공동 가축으로서 돼지는 단 한마리 뿐이다.

그것은 《현명》하고 매사에 솜씨 있는 관리 위원장 김 현모의 묘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일'군들을 모아 놓고 가축 증식에 대해서 말했다.

《어떻습니까, 동무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조합원들 중에는 아직 사유 재산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축산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한 동무가 일어섰다.

《그러면 공동 가축이 없다고 상부로부터 지적이나 받지 않을까요?》

《옳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무축 조합이란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리하여 이 단 한마리의 돼지는 《유축 조합》이란 것을 증명하는 데만 필요해서 길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론법으로 돼지를 살지게 길러도 《유축 조합》이고 뼈가 앙상하고 털이 곤두서게 길러도 역시 《유축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먹성 좋고 품종이 우량한 이 조합의 백색종은 나날이 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여위여만 가고 있다.

고 승 의

한집의 비료는

한데미의 알곡

최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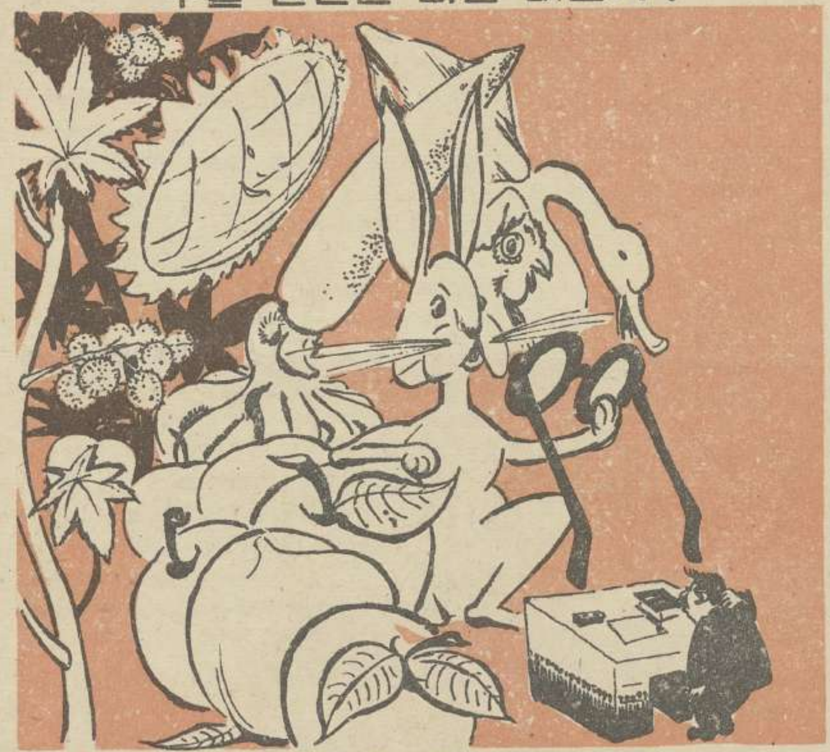
자급 비료 생산이! 잘 안되는 리유는

리영춘 그림

— 풀이 더 있어야 자급 비료가 보장되지

함남 홍원군 농산 지도 일'군들은 영농지도 사업에서 자급비료 원천을 광범히 동원 시키지 못한데로부터 자급비료 생산 실적이 10월 10일 현재로 18%라는 락후한 형편에 있다

수출 원천은 과연 없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니 안경을 드립니다

조 명식 그림

이래서는 수출품이 보장 될수없다

함남 오로군 흥보리 농업 협동조합들에서는 앞날을 생각하고 암'돼지를 보다 잘 기를 대신에 팔아 먹기 쉬운 수'돼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암'돼지—동무의 차별 대우에 의견이 있소

원광수 그림

돼지—오늘에야 씰로스를 먹어보니 내 생일 같구료

고무신 문제

백고무신의 수요자는 남자들보다 녀자들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 상점들에는 때로 남자 백고무신은 무데기로 쌓여 있는데 많이 찾는 녀자 백고무신은 품절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데 있는가?

상업성 중앙 도매소 일'군들은 평양 고무 공장과 고무신 도매에 대하여 계약을 했었다.

백고무신이 몇 켤레, 흑고무신이 몇 켤레 하는 것은 물론 호수(크기)별 수량까지도 명확히 밝혀서.

그러나 중앙 도매소 일'군들은 계약할 때 계약서엔 고무신 계약량을 규격별로 밝히고 꼭 계약대로 보장해 줄 데 대하여 다짐도 했지만 그 후에는 감감 잊어 버렸다. 그들에겐 어떤 크기의 고무신이 수요가 많으며 백고무신은 누가 더 많이 신는가 하는 문제는 관심사 조차 아니였다.

때문에 고무 공장에서 녀자 백고무신을 상반년도 백고무신 총계약량의 28%밖에 주지 않았을 때 중앙 도매소 일'군들은 백고무신은 녀자들이 더 많이 신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총수량만 채우면 돼, 총수량만.〉

하며 녀자 백고무신 대신에 남자 백고무신을 인수하여 100%를 채웠다.

그리고는 성 도매 상업 관리국에 〈고무신 인수 계획을 100%로 완수 했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그리고 고무 공장에서 상반년도에 계약된 고무신을 넘겨줄 때에도 제일 수요가 많은 31~42호까지의 남자 흑고무신을 4만 5천족이나 덜 주었지만 중앙 도매소 일'군들은

〈그럼, 수량이래도 채워야지, 계획을 미달하면 되나.〉

하며 적은 호수의 고무신을 계약량보다 28만 6천족이나 더 받았다.

계약대 인수 실적을 제때에 기동성 있게 분석 총화하여 인수하지 못한 수량은 공장에 제기하여 시급히 인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들은

〈거야 우리 책임인가, 계약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공장에 책임이 있지.〉

하고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그저 공장에서 주는대로 인수하였다.

이처럼 계약대로 인수하지 않고 공장에서 주는대로 인수한 현상은 청진 고무 공장 출하 도매소와 해주 지구 도매소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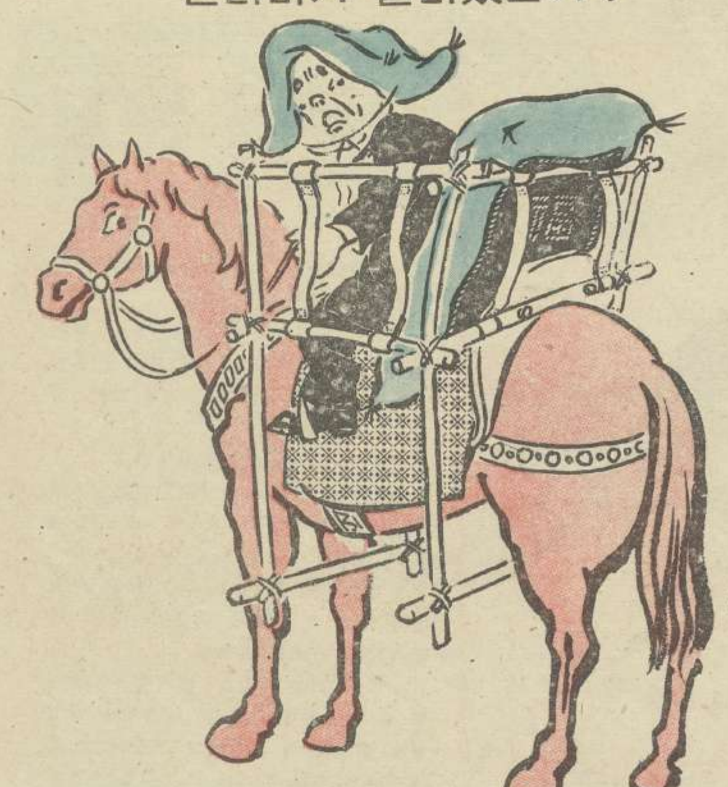
이렇게 되여 녀자 백고무신과 큰 호수의 남자 흑고무신이 때로는 상점들에 품절되군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책임은 도매소 일'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매소와의 계약된 수량을 규격 별로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한 고무 공장들에도 중요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업성 도매 상업 관리국

강 동 수

보신주의자여 그래서야 천리마가 달리겠는가?



최영근 그림

로동의 영예를 모르는 것은 낡은 사상 잔재

송응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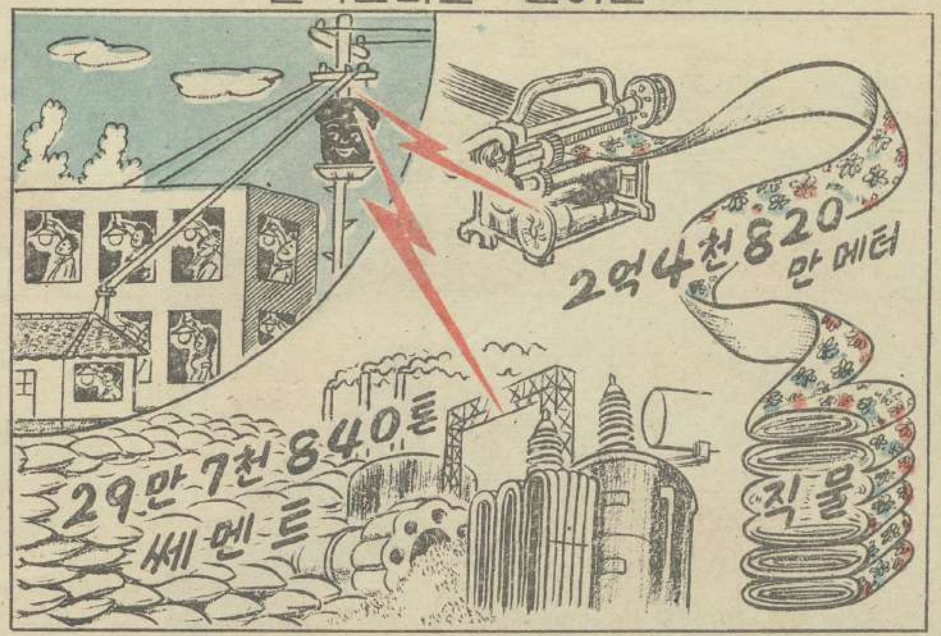
—동무도 이 영예스러운 대렬로 나오시지요

길이 너무 컸다

허능랙 그림

직장 진출 안하실래요?
—저 어린애 때문에…

전기를 매 가정에서 매일 한시간씩 절약한다면 1년이면……



이러지 맙시다

원광수 그림

지방 산업 지도에서

지방 산업 지도국에서

한 기자가 경공업성 지방 산업 지도국 부국장을 만났다.

《지금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 우수한 군과 뒤떨어진 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그러면 공장 수'자만이라도…》

《그런데 군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왜요?》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럼 국가 계획 위원회에 가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도의 정형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 대한 것도 공장 수'자와 도'적인 총 생산액 밖에는 모릅니다.》

《공장 수'자와 총생산액 만이요?》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물었다.

《하면, 통계만으로 보아서 제일 우수한 도와 뒤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도는 어느 도입니까?》

《글쎄 그건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그 수'자도 정확한 것이 돼야지.》

《왜 그렇습니까?》

《각 도들에서 보고하는 식이 저마끔 다르니까요. 어떤 도에서는 조업 시작한 것만 보고하는가 하면, 어떤 도에서는 방금 건설에 착수한 것까지 보고하고, 심지어 앞으로 건설할 것까지 통계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도까지 있으니 도무지…》

《그렇지만 도에 지도를 자주 나가셨으면 도들의 실정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

《부국장 동지께서 언제 지도를 나가셨드랬습니까?》

《나는 다른 일이 바빠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지도국에서 기술 지도만을 주로 하셨다니 기사장 동지는 지도를 많이 나가셨겠구만요?》

《기사장 동무도 밑에 내려가 지도한지는 퍽 오랩니다.》

기자에게는 기사장이 왜 현지 지도를 못나갔을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헌데 후에 알아 보니 그 원인이란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 출장 나가기 싫어서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방 산업 지도국이 지방 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도 없이 일해 왔다는 것이다.

헌데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기들은 지도를 잘 못하고 있지 않다고.

도에서

한 군에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지방에 있는 석회석을 리용할 쎄멘트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쎄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잘 몰라 로를 쌓는다는 것이 잘못 쌓아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를 먹어 가며 여러번 반복 시공을 한 끝에 겨우 소성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로를 만들어 놓으니 이번에 또 석회석이 잘 [illegible]지지 않았다. 때문에 좋은 쎄멘트가 나오지 않았다. 가리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그들은 석회석을 이런 것도 넣어 보고 저런 것도 넣어 보고 하면서 두 번 세 번 소성해 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다. 철이 [illegible]는 석회석을 넣지 못했기 때문이였다. 나중에 쎄멘트 생산에서 성공은 했지만 이런 거듭되는 반복 시공과 시험 때문에 공장 조업 기일이 적지 않게 지연되였고 안 해도 됐을 헛수고를 많이 했다.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도 인민 위원회 지방 산업처에 기사장도 있고 기술 부장도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도하지 않았는가고. 강원도 인민 위원회 지방 산업 지도 일'군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illegible] 아니라 강원도내 군에서 있은 일이며 강원도 인민 위원회 지방 산업처 일'군들이 군에서 지방 유휴 자재로 공장을 건설하는 일'군들에게 기술적 문제와 기업 관리 방법에 대하여 [illegible] 강습과 지도를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천군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은 것이다.

군에서

지방 유휴 자재를 동원하여 공장들을 건설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10월 중순 금화군에 내려간 도 지도 그루빠 책임자는 군 계획부장에게 물었다.

《금화군에서는 공장들을 얼마나 건설했습니까?》

《통합해서 종합 공장을 건설해 놨습니다. 다른 군들에선 얼마나 건설했습니까?》

《모두 대단합니다. 보통 세개 이상이고 다섯개씩 건설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했으니 그렇지…》

《지금 다른 군들에선 별의별 공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식료품 공장이나 직물 공장은 거의 다 건설하고 도자기 공장을 만든 군이 있는가 하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군과 야금 공장을 만들겠다는 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군 같은 데선 쎄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벌써 생산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군들이야 조건이 좋으니까요. 우리 군에야 뭐이 있어야지…》

《원천이 없는 거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군에서도 능히 생산할 수 있는 직물 같은 것은 왜 아직 생산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비가 없어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석탄이 있어야지요. 우에서 석탄하구 설비들을 좀 해결해 주시우.》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진행하십시오.》

《그 투쟁이야 얼마나 했다구요. 지금도 계속 내려 가서 회의요, 강연회요, 그리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자는 표어와 직관물도 만들어 붙이고…》

《그런 표어를 이 방에부터 붙이십시오. 이 군보다도 낫지 못한, 아주 산'골이고 과거에 달구지 공장 하나 없던 법동군에서는 설비와 연료도 자체로 해결하여 종합 철공소와 식료품 공장, 직물 공장, 병마개 공장(골꾸), 석회 공장을 건설하고 벌써 모두 생산을 내고 있는데 이 군에서는 자체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고 있으니 우선 군 지도 일'군들의 보수주의와 소극성부터 없애야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비와 연료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리운봉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몰랐에요

오늘이 위생 검열날임을 안 어떤 부인 문'살 닦고 걸레 치기에 밤을 꼬박 새웠네.

이튿날 검열원이 와서 하는 말—

《아주머니 우리가 올줄 미리 아셨구먼요?》

부인은 펄쩍 뛰며 아닌 보살하고 말했네—

《이렇게 오실줄은 정말 몰랐에요. 우린 언제나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검열원은 이모 저모 살살이 돌아보고—

《옳습니다. 우린 항상 이처럼 위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합격증 한장을 붙여주고 갔다네.

× ×

합격증 받은 아주머니 시름을 놓은듯 이튿날부터 발편 잠을 주무시네.

동리 부인네 다름없이 청소에 분주하나 이 아주머닌 안심하고 태평하게 주무시네

얼굴에 달려붙는 파리'떼도 용서하며 돌아오는 토요일까진 잠을 자도 괜찮다네.

× ×

그런데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검열원들 오늘 다시 이집에 들어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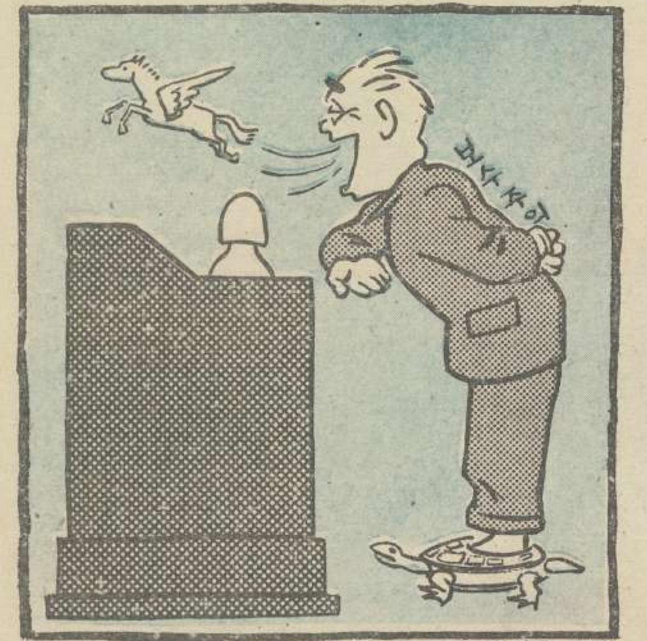
잠을 자던 아주머니 깜짝 놀래 일어나서 잠에 취한 두 눈을 주먹으로 부비며—

《이렇게 오실줄을 정말 몰랐에요. 그럴줄 알았더면 거두기나 했을걸……》

아주머니 초조해서 어쩔줄 모르는데 지저분한 방안마저 아주머닐 비웃는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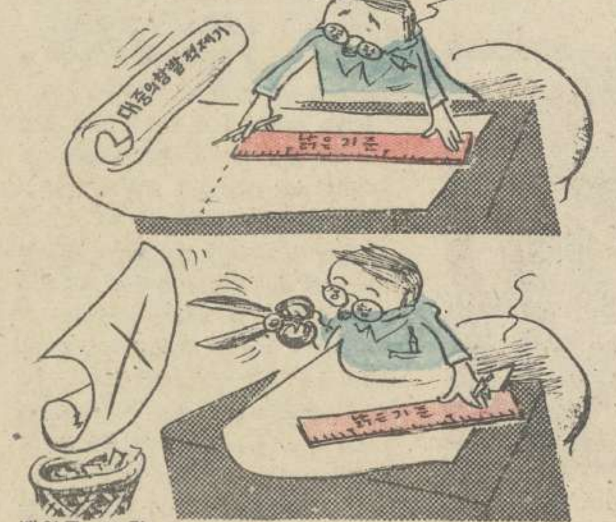
최성길

입으로는 천리마,



행동은 거북이 최영근 그림

경험주의자 일한다……



백인균 그림

굴진이 거북이니 채광도 거북일 수 밖에

최영근 그림

아직도 이런 식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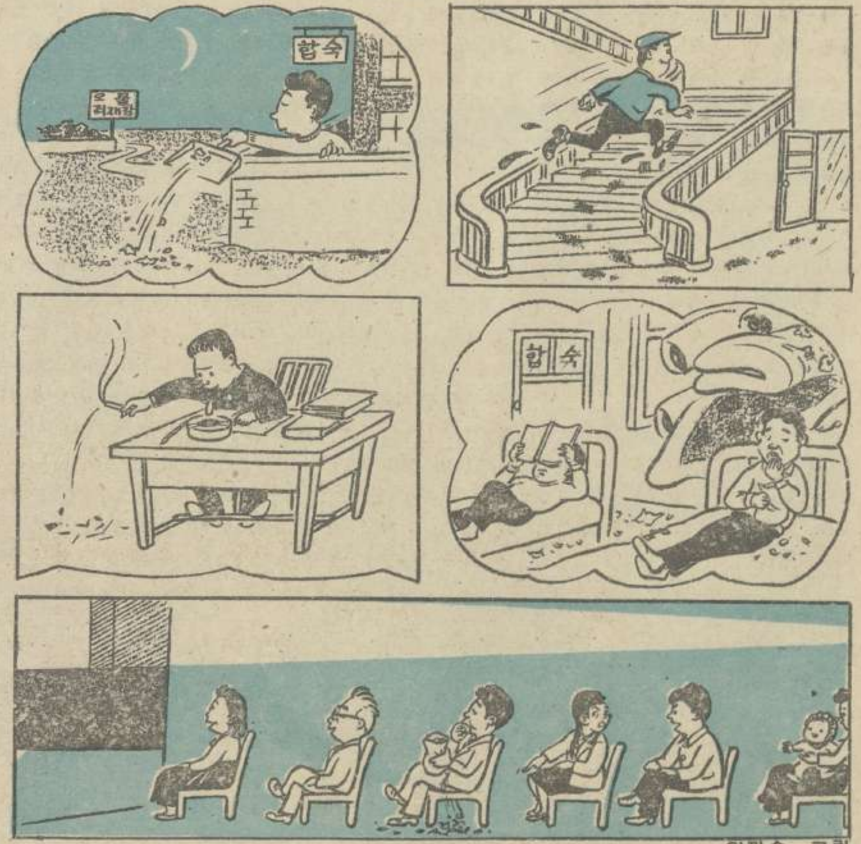
허 능력그림

접대원—보나마나죠 식사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승리 하였다

원광수 그림

이런 점은 고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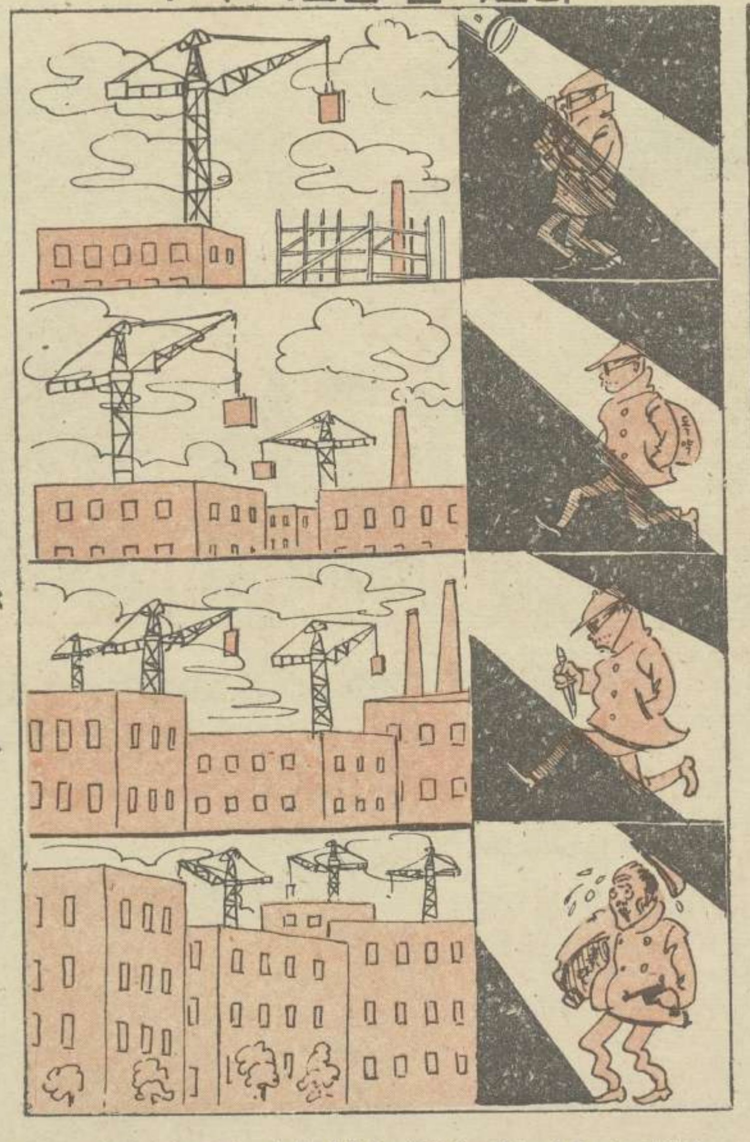
원광수 그림

송응남 그림

길을 묻기에

곧바로 대주었다

사회주의 성과가 커질 수록 적들은 발악한다



허능랙 그림

살인귀들의 자랑

백인균 그림

꽁지에 불이 달렸다

오흥택

꽁지에 불이 달리면 뛰기 마련이다.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워싱톤으로부터 대만까지의 거리를 뛰였으나 꽁지에 달린 불을 끌 수는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그들로서도 매우 딱한 노릇이다. 앉아 있자니 불안하고 뛰자니 숨차고… 숨찬 것은 고사하고 꽁지에 달린 불은 더 확대되여 뜨거워나며 뜨거워나니 더 뛰기 마련이다.

최근에 그들의 꽁지에 불이 붙을만 한 몇 개의 사건이 있다.

그 하나는 조선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이 철거했으니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하등의 구실도 없다는 강력한 세계 여론이며, 또 하나는 대만 해협에서 감행하는 미군의 무도한 전쟁 도발 정책을 즉시 그만 두라는 온 세계 인민들의 웨침이다. 물론 이외에도 허다한 문제에서 미국의 침략 정책에 타격을 주는 사변들이 련이여 일어나고 있다.

이 많은 문제들을 다 말할 것도 없이 그중 미군의 남조선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해 보더라도 시세는 침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 군대를 주둔시키고 일련의 도발적 책동을 감행하는 것이 《북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써버려 왔다. 다만 그들의 이 억설대로만 문제를 본다 해도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에서 철거한 그 사실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란 말은 더 떠버리기 곤난하게 되였다. 원래가 없는 것을 만들어 듣고 떠버려온 터이라 이제는 그 구실조차 찾을 수 없게 되였으니 사정은 딱한 것이다.

그래서 덜레스는 또 하나의 억설을 써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여 10월 28일에 입을 열었다.

덜레스의 말에 의하면 《미군은 1만마일 뒤로 철거하게 되는것》이며 중국 인민 지원군이 《압록강 건너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침략자다운 론법이다. 중국 사람이 중국으로 갔고 미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라는 건데 멀고 가까운 거리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침략적 의도가 없는 선량한 사람으로서는 리해가 잘 되지 않는다.

덜레스는 침략 전쟁을 타산하면서 하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덜레스의 이 궤변은 미국 자신을 위하여 유리하지 못하다.

쏘련의 인공 위성이 지구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오늘, 또 대륙간 탄도 로켓트가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된 오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서 거리 문제를 전같이는 중요시 하지 않게 되였다. 쏘련이 거둔 위대한 과학적 성과는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덜레스가 불행하게도 미국에 대륙간 탄도 로켓트와 같은 것이 없으며 인공 위성에서는 쏘련 앞에 쪽을 못쓰게 뒤떨어진 사정을 념두에 두었다면 그들의 심정은 알만 하다.

사실 까놓고 말하면 미국은 쏘련의 인공 위성 바람에 그들이 내 흔들던 원자 공갈 수단을 잃게 되였다. 그들이 들고 나온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힘이 약하다는 것이 폭로되였다. 그래서 불야불야 인공 위성을 띄우느라고 야단 법석을 쳤으나 그들의 인공 위성은 하늘에 오르기도 전에 연기를 뿜고 곤두박질을 쳤다. 망신을 회복하겠다고 초조하게 애를 썼으나 매번 뜻대로 되질 않았다. 미국의 위신은 뱅가드의 깨여진 칠조각처럼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 할 판이다.

덜레스가 이러한 딱한 사정을 고려에 넣어 거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저들 자체의 약점을 폭로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전쟁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없다. 아마 덜레스가 전쟁 상인으로서의 직업적 본능에 의하여 이 전쟁 문제를 생각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거리 문제를 장황히 늘여놓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 아닌가? 만일 그들이 《1만 마일 후퇴》할 것이 걱정이라면 무슨 생각으로 그 먼거리를 오기는 왔는가 말이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하면 미군도 중국 인민 지원군과 같은 거리로 철수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중국 인민 지원군도 미군과 함께 1만 마일의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자는 전가?

모든 것이 전쟁 상인다운 론리이다. 과연 꽁지에 불이 달린 자들의 억설이다.

옛날 설사를 만난 량반 녀석이 변소에 가는데도 체면 걸음을 하다가 바지에 똥 쌌다는 격으로 침략자 미제가 저들의 침략적 야욕을 계속 감추면서 날뛰다가는 제바지에 똥 싸는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허리 없는 억설은 아예 그만 두고 제땅으로 물러가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서도 좋을 것이다.

꽁지에 불을 달고 등에 화약을 지고 그렇게 앞뒤도 안보고 뛰다가는 자멸할 것이니 우선 등에 진 화약이라도 내려 놓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학자님도 살수 없다

박승히 그림

신발

박승필

응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할 년령의 소년들이 쓰레기통이나 두지지 않으면 안되는 남조선 거리——수길이와 길남이도 그런 신세의 소년들이다. 둘이는 언제나 함께 사이 좋게 거리를 해매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하루는 난처한 일이 생겼다.

쓰레기통에서 미군이 신다가 버린 한 컬레의 신을 둘이 서로 한 짝씩 얻었다. 저마다 짝이 갖춘 구두를 갖고 싶은 두 소년은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다. 둘의 신이 모두 처져서 말이 아니다.

〈그거 날 주렴, 너는 아직 신이 성했구나.〉

〈이것 보렴, 발가락이 다 나갔는데…〉

수길이와 길남이는 서로 사이 좋은 편이였지만, 겨울은 닥쳐 왔는데 신은 것들이 한심한 판이라 저마다 그 헌 신이 갖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할가?〉

〈어떻게?〉

〈알아 맞치기 내기를 하지 않을래?〉

〈수수께끼 말야?〉

〈안야, 여기로 말이지,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이 어떤 신을 신었는지 알아 맞치는 사람이 이 한 컬레를 신기로 하잔 말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난 검은 신—〉

〈난 빨간 신—〉

그리하여 둘이 쪼구리고 앉아서 기다리게 되였다. 얼마 후에 수길이가 고함을 쳤다.

〈됐다, 아 구두는 내 해다. 자 보라구, 검은 구두지.〉

길남이도 바라보았다. 판자집 모퉁이를 돌아서 깡통을 든 거지 애가 걸어오고 있는데 신이 확실히 검어 보였다.

그러나 눈을 밝히고 있던 길남이는 중얼거렸다.

〈무슨 신이 저래?〉

가까히 온 것을 보니 그 거지 애의발이 검은»것은 사실이나 신을 신은 것은 아니였다. 맨 발에 숯검정으로 칠하고 신발 모양을 그렸던 것이다. 길남이는 수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애, 너두 틀렸다. 저게 어디 신발이냐?〉

수길이는 그 말에는 대답지 않고 거지애에게 물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발이 시리지 않냐?〉

〈아니, 숯검정이를 발랐다고 발이 시리지 않을까 뭐…〉

〈그럼?〉

〈새빨간 맨발로 걸어 다니면, 구걸을 하며 해두, 가까이 오지두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뭐…〉

수길이는 길남이 편을 돌아 보며 말했다.

〈애, 길남아, 우리 이 구두를 이 애한테 주자. 우리는 아직두 얼마간 더 신고 다닐 수 있지 않니?〉

길남이도 선선히 대답했다.

〈그렇거자, 옜다!〉

거지 애는 고맙고 기뻤다. 수길이와 길남이도 마음이 흡족했다.

거지 애가 신을 받아 신는 것을 보고 섰던 수길이가 말했다.

〈망할 놈의 개승만이지. 북쪽에서는 신발을 4백만 컬레나 거저 주겠다는데…〉

길남이가 말을 받았다.

〈뭐 그 뿐인줄 알어? 쌀은 어떡허구?〉

〈너두 잘 아는구나! 북쪽에서는 우리 같은 류랑고아들을 받어서 키워 주겠다지 않어, 학교에두 보내 주구…〉

〈학교?!〉

〈그렇단다. 중동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되였다더라.〉

이번엔 거지 애가 물었다.

〈중동 의무 교육제란 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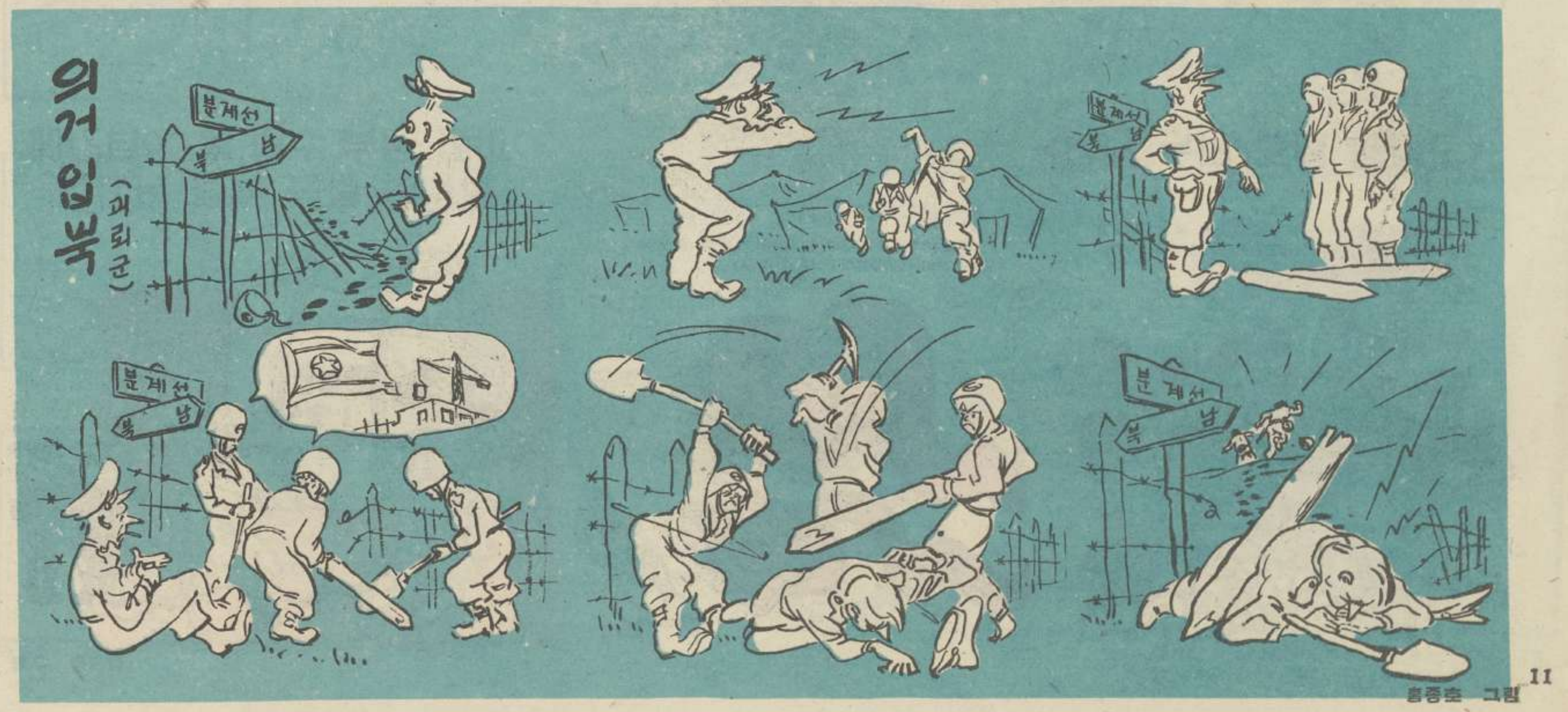
〈중학교까지 누구나가 다 다니게 하는 제도래. 그러니까 우리두 북으로 가기만 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례 다니게 될 게 아니냐!〉

〈야! 거 참!〉

세 소년은 부러운 듯이 북쪽 하늘을 쳐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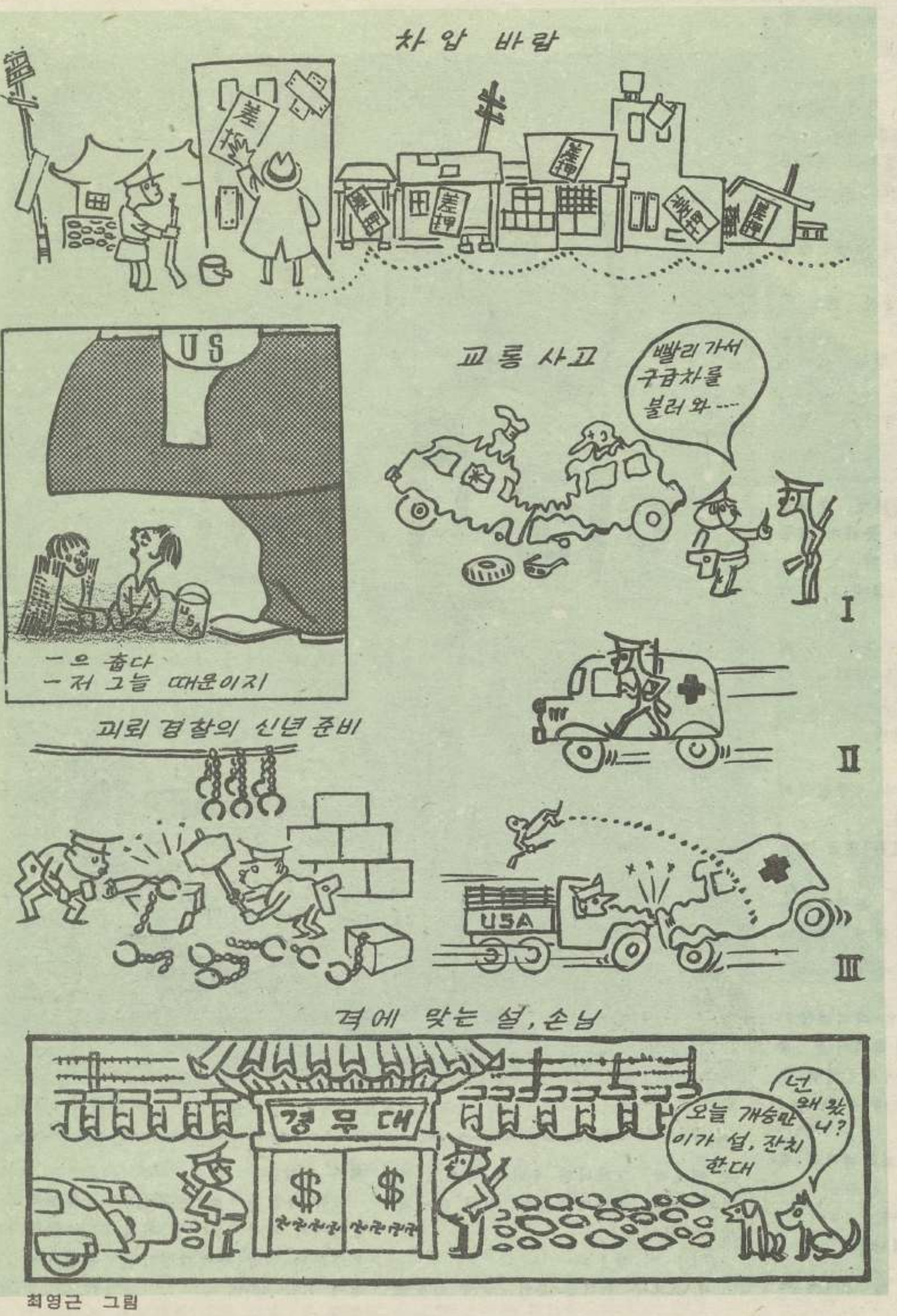
어깨 우로는 흰 눈송이가 꾀뜩꾀뜩 떨어지기 시작하고, 찬 바람이 그들의 누덕누덕 기운 바지가랭이를 휘감으며 불어 지나 간다.

송응남 그림



홍종호 그림

저물어 가는 남조선



최영근 그림

땅 빠이

신홍순

도적을 지키라고 개를 기르는데 이 개가 어쩌된 셈인지 도적을 보고도 영 짖지를 않는다.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왜 너는 도적을 보고도 짖지를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모두가 도적놈인데 누굴 보고 짖겠느냐!》고 대답 하더란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은 오늘날 남조선의 정부 관리라는 것들이 아래로부터 장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랑탐관오리요, 인민의 재산을 략탈 착복하는 날도적놈판이라는 풍자적인 비유이다.

큰 놈은 크게 먹고, 작은 놈은 작게 먹고 여하튼 허만 닿으면 먹어대는 판이요, 손만 닿으면 집어 넣는 판이라 오죽하면 경찰내에 〈땅, 빠이〉라는 술어까지 류행되고 있겠는가?

〈땅〉이란 말은 〈땅하러 간다〉는 뜻이요, 〈땅하러 간다〉는 말은 즉〈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러 간다〉는 뜻이며, 〈빠이〉란 말은 략탈해 온 것들을 〈분배하자〉 즉 일본 말 그대로 〈분빠이〉(分配)를 하자는 뜻이다.

경관놈들이 돌아 다니며 〈땅〉을 해다가는 그것을 적당히 노놔 먹는데 파출소 주임으로부터 서장, 경찰부장, 나중엔 내무부 장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빠이〉가 진행된다. 인제는 이것이 아주 관례가 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금 바치듯 꼬박꼬박 바쳐야만 되기로 되였고 나중엔 서장 부인에게까지도 매달 이삼만환씩 먹여야 한다.

어쨌든 세도 부려 뢰물 먹고, 둥쳐서 벗겨 먹고, 땅땅 울러 뺏어 먹고, 외상값은 떼여 먹고, 돈 있는 쌍만 보는 날이면 벼라별 구실 붙여 강탈해 먹고야 마는 심보에 그것도 잘 안되는 때엔 아닌 밤중에 권총 내 대고 강도질까지 서슴없이 한다.

저번 전라도 리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리리 경찰서의 리 형사라면 장난감 인형들까지도 골머리를 흔들 지경으로 악질적인 경관이다.

생김생김이 눈따부리 해 가지고 감때 사나운 얼굴에다가 말투까지가 아이 어른 없이 혀'바다 짧은 반말지거리다.

쌀가게고 포목전이고 음식점 려관집 할 것 없이 이 자한테 피해 안 당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눈따부리(리 형사)를 꿈에만 보아도 그 이튿날 돈 만환은 손해 난다》고 한다.

헌데 리 형사네 집 바로 뒤'집에 정미소 집 주인 김 모라는 사람이 사는데 최근에 와서 영업은 잘 안되고 게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세금은 왈칵 나와 도저히 정미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상업으로 전환해 보려고 어느 기업가에게 그것을 팔아 버렸다.

바로 정미소 값을 받은 그날 밤 그 집에 강도가 들었다. 딴 방에서 자던 그집 딸애가 개 구멍으로 빠져 경찰소로 갔다.

《강도예요! 강도!》

대'자고'자 경찰소에 들어서자 마자 웨쳤다.

《뭐 강도? 어디 어디?》

키가 큰 순경 하나이 모자를 쓰면서 소녀를 본다.

《저 뒤 정미소 집이예요, 글쎄 얼굴에다 시꺼먼 보자기를 뒤집어 쓴 놈이 우리 아버지에게다 권총을 내 대고 돈을 내라고 해요, 가 봐 주세요!》

소녀는 숨찬 소리로 애걸하다시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

순경 둘이 같이 길에 나섰다. 밤은 어두우나 전지불 없이도 길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순경 하나는 날쌔게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 가고 순경 하나는 밖에서 소녀애와 같이 망을 보고 있었다.

1분 2분 정적은 지속된다.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이때나 저때나 하고 소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무엔가 검은 그렴자가 담장 우에 나타났다. 소녀는 옆에 섰는 순경을 툭툭 치며 〈저게 뭐예요?〉하고 알려 주었다.

《나간다!》안에 들어 갔던 순경이 웨치는 소리다.

《임마! 섯!》

망을 보던 순경은 도망치는 강도의 뒤를 따른다.

《서라! 섯! 쏜다!》

쾅! 쾅쾅! 따라가던 순경은 쫓아가다 못해 〈에라 산채로 체포해서 공 못세울 바에야〉하고 권총으로 갈겼다.

도망치던 강도놈은 집 뒤 언덕 바지에 푹 고꾸라진다.

《강도 잡았다!》

소녀애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총 소리에 놀라 깬 이웃 사람들은 강도를 잡았다는 바람에 우 몰려 들었다.

《예, 돈 보따리로구나!》

순경은 우선 보자기에 큼지막하게 싼 돈 뭉치부터 뺏아 들고 좋아하였다.

《아 됐다 됐어!》

집안에 들어 갔던 순경도 와서 돈 보따리를 보자 큰 수나 생긴 듯이 기뻐하였다.

《순경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돈을 찾아 주서서…》

정미소집 주인 령감은 어둠 속에서도 허리를 굽실거리며 보따리를 잡았다. 순경은 냉큼 잡아 채며

《이건 도적의 증거품으로 압수하는 거야!》하고 팩 질렀다.

《어디 어떻게 생겨먹은 자식인가 한번 볼가?》

순경은 강도놈의 검정수건을 벗기면서 한편 성냥불을 그어댔다. 순경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리 형사! 이게 어떻게 된 셈이야요》

《후! 이놈아, 누가 널더러 땅 허는 사람을 잡으라든?》

그는 맥 없이 쓸어진다. 강도놈이란 바로 다름아닌 못되게 놀아 먹던 이웃집 리 형사였다.

이웃 사람들은 증오에 찬 소리로 쏘아 붙인다.

《이놈아! 우리 집에서 뺏어 간 돈 내 놔라!》

《이 놈아. 우리 외상값 내라!》

《이 놈이 바로 엊그제 우리 집에 들어 왔던 복면 강도로구나?》

군중들은 웅성거린다.

《리군! 리군!》

순경 하나이 죽어가는 리 형사에게 정신 차리라는 듯이 대고 흔든다.

리 형사는 억찌로 말을 한다.

《후! 그 돈을 〈빠이〉할 때 나두 한 몫 넣어 줘야 하네!》

마지막 숨을 모으면서도 그는〈땅빠이〉의 정신을 고수했던 것이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부정 행위 몇가지

《군납품 탈모 비누 사건》

기업자에게 3억5천만환의 폭리를 주게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환씩 뢰물을 받아 먹은 괴뢰 정부의 《국방부 장관》《재무부 장관》《상공부 장관》들

최근 밝혀진 1억7 천만환의 《국채 위조 사건》역시 괴뢰 고위 당국자들의 조종하에 된것

괴뢰 정부 수립 후 10년간에 발생한 량곡 부정 사고량

박승히 그림

남조선의 홍수

박승히 그림

원인과

결과

물'가 또 폭등

박승히 그림

흉기를 증강할 수록 반미 기세는 높아간다

리영춘 그림

미제는 최근에 장갑차까지 괴뢰 경찰에 넘겨 주어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기세를 탄압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상처는 늘어만 간다

허 능택 그림

일본 고베 조선 중고급학교 미술 써클원들의 목판화

재판정에서 초중 3학년 조 막규 (15세)

1950년 11월27일 재일 동포들의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한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적 요청에 대하여 무장 경찰을 동원하여 재일 동포들을 탄압하였다

시위 행진 고중 2학년 김 철제 (17세)

롱성 투쟁 고중 2학년 김 철제 (17세)

기시 방문기

로 철

갑——일본의 한 신문 기자
을——일본 정부 수상 기시 노부스께

갑: 수상 각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귀환 요구를 충족시킬 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남 일 외무상 성명을 읽고 당신의 견해는 어떠한지?

을: 공산주의 선전이오.

갑: 그러나 재일 60만 조선인들이 한결 같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로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요?

을: "공산주의자들의 요구"이오.

갑: 어떻게 60만 명이 죄다 공산당원일수야 있겠소. 또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중 태반은 어린애들이 아닌가요?

을: 그들은 "간접적 공산주의자"들이오.

갑: "간접적 공산주의자"라! 나는 어데선가 이와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전 덜레스의 그 소위 "간접적 침략론"에서 나온게 아닌가요?

을: 옳소, 나는 당신의 기억력을 높이 평가하오.

갑: 칭찬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상 각하, 또 하나 묻겠는데 일본 정부가 무고한 조선 공민들을 오무라 수용소에 가두고 박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을: 우리는 살 곳 없는 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하고 있소.

갑: 그러니 그들을 요구대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엘 찾아 가게 하는 것이 더 인도주의적이 아닐까요?

을: 우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소.

갑: 그러나 당신이 인정하건 안 하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벌써 10여 년간이나 성과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력사적 사실이 아닌가요?

을: 우리는 력사를 보지 않소, 오직 지리, 《자유 세계》의 지리만을 볼 뿐이오.

갑: 그러나 세계에는 사회주의 진영이 엄연히 존재하며 또한 우리 시대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는 시대라는 건 알고 있겠지요?

을: 아니요, 우리는 기후 조건을 보지 않소, 오직 지리, 《자유 세계》의 지리만을 볼 뿐이오

갑: 잠간 가만… 역시 이것도 나는 어데선가 비슷한 말을 들은것 같은데 혹시 이전 《미국의 국경선은 전 세계》라는 덜레스의 그 소위 "지리학"에서 나온게 아닌가요?

을: 옳소, 당신의 기억력을 높이 평가하오.

갑: 거듭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상 각하, 또 묻겠는데 리 승만과의 "한일 회담"에 일본 측 대표로서 "38선을 압록강까지 밀고 간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폭언한 자가 참가하고 있다는건 사실인가요?

을: 그는 "대동아 공영권" 시대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요.

갑: 그래도 전체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은 물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정책과 재일 조선 공민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남조선에 강제 송환하려는 당신의 기도를 견결히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요? 당신은 완전히 고립되고 있지 않는가요?

을: 아니요, 우리는 친우가 많소.

갑: 누구누구인가요?

을: 아이젠하워, 리 승만, 장 개석, 느고.딘.디엠.

갑: 참 "많기도"하고 "훌륭도"한 친우들이구만요. 당신은 아마도 조선 전쟁의 교훈을 잊은것 같군요?

을: 그 "국부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이 많은 리윤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얻었소.

갑: 흠—이것도 역시 나는 어데선가 비슷한 말을 들은것 같은데 혹시 이전 덜레스의 그 소위 "전쟁 접경 정책"에서 나온게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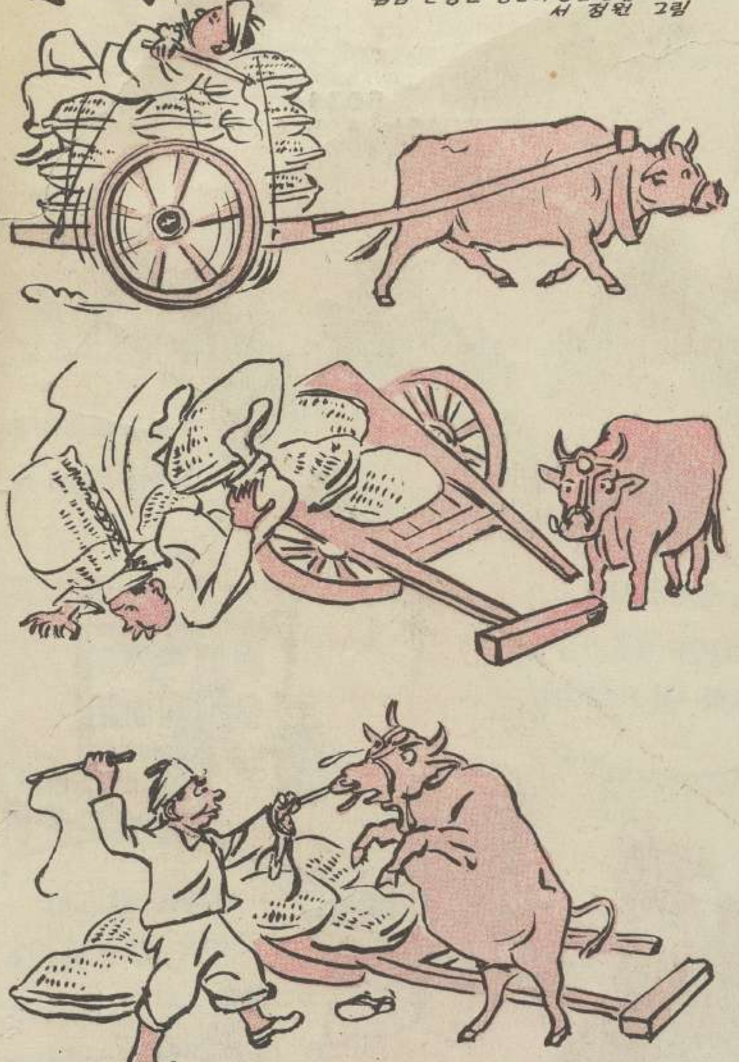
을: 옳소, 역시 당신의 기억력을…

갑: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그래 대체 나는 누구와 지금 일문 일답을 하고 있는가요? 일본 정부 수상인가요, 미국 국무 장관인가요? 아니면 바람벽인가요?

독자란

소도 말 못하는 조합원이건만……

함남 신상군 동천리동천농협 서 정원 그림



— 학습장 가지고 배우러 갑시다
— 네 잠간 기다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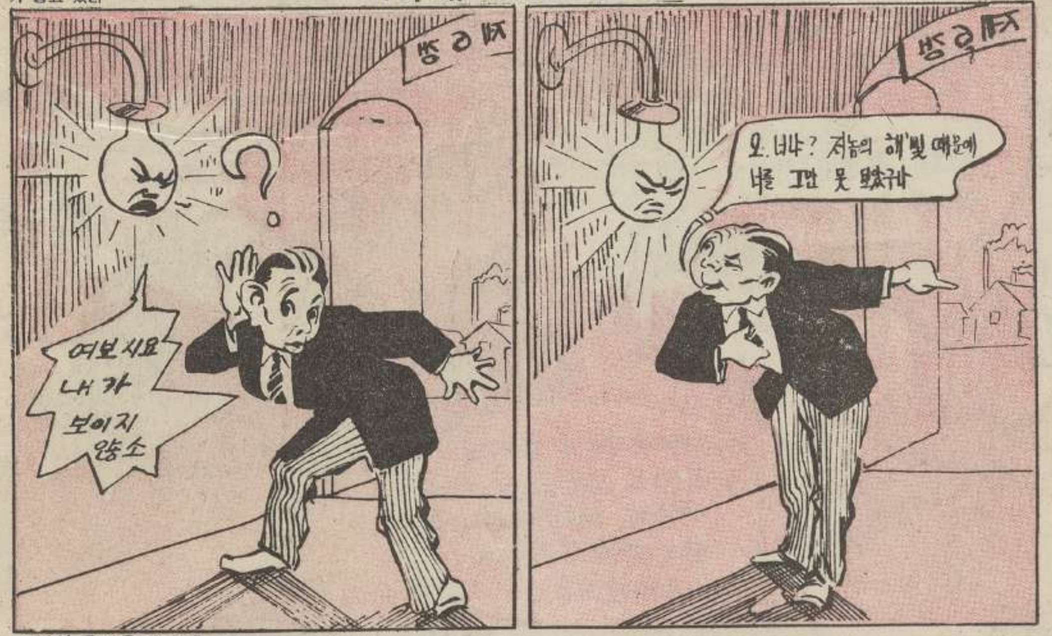
평북 구성군 구성읍 허 성필 그림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국영 흥남비료공장 기계 제판 직장 전 남성 그림

시세 없는 전등

구성 광산 기계 공장에서는 낮에도 필요치 않은 곳에 전등을 켜 놓고 있다



평북 구성군 구성읍 허 성필 그림

적들은 이런 기회를 노린다

희천 공작기계공장 야금부 리 영원 그림

조선인민군 야전 우편함 제3920호 현 오 태악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12. 10. ㄱ—22854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12. 15. (값 50원)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50 A